

The 19th Subscription Concert by Pusan City Traditional Dancing Troop

제19회 정기공연

부산시립무용단

'87 [화] 12 / 15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대강당
Pusan Citizen's Hall

프로그램

■ 작 법 (作 法)-----

■ 선유락 (船遊樂)-----

■ 무 고 (舞 鼓)-----

■ 강강술래-----

■ 농 악-----

☞ Note

- 불교 무용, 착복(着服)이라고도 함. 영산재(靈山齋) 중 식당작법(食堂作法) 속에 그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상주권공재(常住權供齋) 수록재(水陸齋) ·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 ·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중에도 요잡(繞匝)이라 하여 그 의식의 곡목 중간중간에 많이 삽입됨. 작법에 는 나비춤, 바라춤, 법고(法鼓) 춤의 3가지가 있다.
- 이조 순조이후 궁중의 연희때 상연 되어왔던 무용이다. 채선(彩船)을 놓고 동기(童妓) 한쌍을 가려 소교(小校)로 분장하여 홍의(紅衣)를 입고 주립(朱笠)에 패영(具纓)을 달고 호수(虎鬚)와 백우전(白羽箭)을 꽂고 왼손에는 궁이(弓弭)를 잡고 오른손에는 편초(鞭鞘)를 쥔다. 군기(群妓)들이 호령집사(號令執事)의 지휘에 따라 채선(彩船)을 중심으로 내무(內舞), 외무(外舞)를 추는 호화스런 무용이다.
- 동동(動動), 무에(無阜)와 함께 고려때부터 전하는 향악 정재(鄉樂呈才)의 한 가지. 고려 충렬왕 때 시중(侍中), 이곤(李混)이 영해(寧海)에 귀양 갔을 때 바다 위에서 부사(浮查)를 얻어 무고(舞鼓)를 만든 데서 비롯한다고 전함. 원래는 2사람이 추었으나, 악학궤범 시절에는 이고무(二鼓舞), 사고무(四鼓舞), 팔고무(八鼓舞) 등 복 수(數)와 무용수가 때에 따라 증감됨. 순조 28년(1828) 진작의궤(進爵儀軌)와 동 29년 진찬의궤(進饌儀軌)에 무동(舞童)과 여기(女妓)의 무고를 추는 다양한 그림이 전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무복(舞服)을 동서남북 방위(方位)의 빛깔에 따라 입은 점이 특징이다.
- 전라도 특히 남도 도서지방에서 성행한 무용의 하나이다. 정월대보름 또는 팔월 한가위와 같은 달밝은 밤에 부녀자들만이 즐기는 군무이다. 속설(俗說)에는 임진왜란때 충무공이 왜적에게 아군의 군세가 많음을 과장하기 위하여 이런 춤을 추게했다고도 하며,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 온다는 뜻에서 강강수월래(強姜水越來)라고 했다는 설도 있으나 <강>은 원(圓)의 사투리이고 <술래>는 순라(巡邏) 또는 돌레로 보는이도 있다. 처음 중물이 또는 중물이 장단에서 시작하여 빠른동작인 굿거리 장단으로 변하며 흥이 고조된다.
- 원래는 굿을 가르킨 말이었으나 최근에와서 민속놀이가 포함된것을 말한다. 풍물, 풍장, 두레, 매구, 매굿, 굿 등 지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불려왔으나 최근에는 동민들이 동신(洞神)에게 제사하는 의식인 당굿(洞祭) 지신밧기 굿, 또는 걸립굿, 집단 노동조직인 두레를 조직하여 김멜때와 민속놀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유래는 농사의 과종과 추수감사를 신에게 기원하는 굿, 또는 안택(安宅)을 기원하는 안택기원설, 중이 농악기를 들고 걸립(乞粒) 한데서 비롯됐다는 설, 반농반군(半農半軍)에 기원한다는 군악설(軍樂說)이 있다. 경기, 호남, 영남, 강원 농악으로 나누어져 편성과 장단 진법(陣法)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